

자동차산업

중국 소매, 4월 대기수요 영향으로 부진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3월 중국 소매판매 174만대 (-12% YoY, 이하 YoY), NEV 11만대 (+101%)

3월 중국 승용 수요는 174만대로 10개월 연속 YoY 감소세를 (1월 -4%, 2월 -19%) 기록했다. Sedan 86만대 (-12%), MPV 13만대 (-20%), SUV 75만대 (-11%)로 모든 세그먼트의 수요가 감소했다. 이는 아직 3선 이하 도시에서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, 3월 5일 발표된 4월 이후 증치세 (VAT)인하를 앞두고 대기수요 발생했기 때문이다.

세그먼트별 판매비중은 Sedan 49.3% (+0.1%), MPV 7.5% (-0.6%), SUV 43.2% (+0.5%)였으며, 17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던 세단 판매비중의 안정세가 18년에 이어 지속 유지되었다.

NEV 수요는 11만대 (+101%)로 증가하며 전체수요의 위축 국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. 중국이 19년부터 강화된 NEV Credit 제도를 시행 (내연기관 판매량의 10% vs. 18년 8%)함에 따라 주요 브랜드들의 친환경차 신차 출시가 지속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NEV 차종에 대한 수요성장 이어질 전망이다.

주요 브랜드별 소매판매 현황

중국 소매 판매 Top3 브랜드의 3월 판매는 FAW-VW 16만대 (-14%, M/S 8.9%), SAIC-VW 15만대 (-5%, M/S 8.9%), SAIC-GM 12만대 (-24%, M/S 6.9%)로 모두 감소했다.

로컬 OE에서는 Geely 12만대 (-2%, M/S 6.7%), Greatwall 8만대 (+17%, M/S 4.8%), Changan 9만대 (-20%, M/S 4.9%), BYD 5만대 (+10%, M/S 2.6%)로 엇갈린 판매실적이 기록됐다. 참고로 BYD는 처음으로 점유율 Top 15에 진입했으며, Greatwall은 중국 로컬 OE 중 가장 높은 성장 기록했다.

현대차그룹은 산업수요 부진 및 1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출고지연 영향으로 부진했다. 현대차 4.5만대 (-27%, M/S 2.6%) 기아차 2.2만대 (-27%, M/S 1.3%)를 기록했다.

증치세 인하가 시작될 4월 이후 시장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. 월 중 발표되는 CPCA 주간 시장판매 동향 자료 결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